

잠재적 갑상선암의 경부낭성 전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김영모·박선기

배경 : 경부 낭종은 새열 낭종, 유피 낭종, 낭포성 히그로마등의 양성질환으로 생각되어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흔하지 않게 전이성 암종이 경부 낭종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상부 소화기나 침샘, 갑상선에서 기원한다. 이중 드물게 잠재성 갑상선암에 의한 경부 전이에 의해서도 경부 낭종이 발생할 수 있다.

목적 : 잠재성 갑상선암의 경부 낭종 전이를 분석함으로써 임상적 특징을 파악하고, 치료 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잠재성 갑상선암 중 경부 낭종으로 나타난 6예를 임상적 병력, 방사선학적 검사, 세침흡입검사, 수술 방법, 병리 결과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모두 6례로 남자 3례, 여자 3례였으며, 모든 환

자에서 무통성의 유동성 경부 낭종이었다. 증상의 기간은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였으며 모든 경우에서 방사선학적 검사와 갑상선 스캔상 갑상선에 특이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고, 3례에서만 세침흡입검사상 진단이 가능하였다. 4례에서 전갑상선 절제술과 경부청소술을 시행하였으며, 갑상선의 병리 검사결과상 1예에서 다발성, 2예에서 병변쪽 단일 병변, 1예에서는 반대쪽에서 관찰되었다. 술후 4례 모두에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재발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결론 : 잠재성 갑상선암의 경부 낭종 전이는 경부 낭종물의 감별진단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와같은 경우 전갑상선 절제술과 동측 경부청소술, 술후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